

제12절 온양2리(溫洋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해와 연접하며 해안을 따라 옛 7번 국도가 남북으로 놓여있다. 서쪽은 남산(南山)에서 뻗어내린 산맥(山脈)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남쪽으로 양정동(洋亭洞)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골장동(骨長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군발(曲海)

1740년경에 현풍 곽씨(玄風郭氏)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마을 앞 해변(海邊)에 탕건(宕巾) 모양의 큰 바위가 기다랗게 굽어진 형태로 발달해 곡해(曲海)라 하였다고 전한다. 또 곡해동(曲海洞)과 골장동(骨長洞) 사이의 해변이 여러 번 굽어져 형성돼 ‘굽은 바다’의 의미를 담은 군발로 불렸다고 전한다. 마을회관은 2007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14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국도변의 마을 중심에 위치하며, 매년 음력 4월과 10월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동민의 강녕(康寧)과 풍농(豐農),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5. 탕건바위

마을 앞 해변에 탕건(宕巾) 모양의 높이 5m 이상 되는 바위가 있었는데, 해일(海溢)로 인하여 이 거대한 바위가 전복(顛覆)되고 말았다 한다. 동민(洞民)이 용왕제(龍王祭)를 지내지

않아 용왕신(龍王神)이 노(怒)하여 바위를 전복시켰다 하여, 이후부터는 간혹 별신(別神)곳을 하였는데 현재는 연행하지 않는다.

제13절 읍남1리(邑南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2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로 동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읍남2리(抹樓洞)가 있고, 서쪽은 악구산(岳丘山)의 지맥인 금산맥(錦山脈)이 마을 좌우측으로 뻗어있으며, 남쪽은 근남면 수산리와 접하여 있고, 북쪽으로는 읍내3리(月邊洞)가 있다. 그리고 금산(錦山)에서 발원하는 냇물이 하토일(下吐日)과 오개곡(五個谷) 사이로 흘러 남대천(南大川)으로 유입되며, 읍내 3리와의 경계 지역으로 흐르는 물이 남대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흐른다.

2. 마을의 역사

1453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영일인(迎日人) 정도(鄭渡)가 마을을 개척(開拓)하였다 하며, 퇴직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지낸다는 뜻에서 퇴일(退逸)이라 하였다. 그 후 예천인(醴泉人) 임금(林兢)이 입향하여 마을 형성에 가세(加勢)하였고, 일출(日出) 시의 서광(瑞光)이 해를 토하는 듯한 지세라 하여 마을 이름을 토일(吐日)이라 개칭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오개곡(五個谷)과 하토일(下吐日)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오개곡(五個谷)이란 오목하게 굽어진 다섯 개의 작은 골짜기가 합쳐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하토일(下吐日)이 계곡의 하구(下口)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신축됐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105세대가 거주하며 영일 정씨(迎日鄭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